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행복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이상훈 (호남신학대학교)

I. 서론

II. 초고령화 시대와 행복 담론

1. 초고령화와 100세 시대의 문제
2. 소득과 행복 그리고 초고령화시대
3.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 라슬렛의 '제3기 인생'과 새들러의 '서드 에이지'

III.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행복을 위한 '사회적 질' 모델

IV. 초고령화 시대의 기독교 윤리적 행복의 방향: 카리타스와 언약

1. 사회적 행복을 위한 교회와 신학의 기능
2. 어거스틴의 카리타스
3. 관계윤리로서의 언약

V. 결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6565).

• ABSTRACT •

A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of Social Happiness in an Era of Super-Aged Society

Lee, Sang Hoon

This paper seeks to approach the challenges of the super-aged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happiness for sustainability of era of Homo hundred and also attempts to find solutions to its related problems in enhancing happiness index by securing social happin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uts emphasis on the need of securing social elements or aspects of human life and happiness. Above all super-aged societ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nd brings attention to, social elements due to decline or absence of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ty life and (greatly) reduced social activities and public roles. It means there is a significant limit in recognition of super-aged society issue and the effort to find its solutions and an understanding of happiness, all of which solely depend on objective aspects of happiness such as income and health. In contrast, social aspects of human life exemplified in community participation, relationship, and activities are much needed in super-aged society and also instrumental in promoting both individual and social happiness. In this sense, we can find a way to deal with demographic crisis stemmed from super-aged society when social aspects of happiness are widely recognized and pursued. In order to find it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study selectively tries to explore the concepts of *caritas*(love of God) and covenant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e discussion of *caritas* and covenant comes to remind a new understanding of life cycle and as a result offers persuasive principles and contents for the so-called “the third age” and/or “the second life” that will be dedicated to securing social aspects of happiness.

Key words: super-aged society, social happiness, life cycle, social capital, *caritas*, covenant

I. 서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은 거의 언제나 행복에 관한 담론을 생성한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인 만큼 행복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 하나로 끊임없이 탐구되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아’(eudaimonia)¹⁾나 신약성서에 소개된 예수의 팔복(beatitudes)은 수많은 철학적 혹은 신학적 논의의 한 예일 뿐이며 이들을 각각 계승하고 규명하는 수많은 후속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도 비껴가지 않은 주제인 행복은 “영혼이 떨쳐 버리기 어려운 갈망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며²⁾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할 도덕적 이상”으로 평가된다.³⁾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행복에 대한 이러한 논의와 탐구는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하고 확인시켜준다. 근래에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되어 여러 분야에서 연구의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행복이 새삼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가 행복이기에 행복해야 마땅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다. 21C의 세상은 이전보다 행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조건과 환경을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로 혼란해하고 세계 곳곳은

1) 유다이모니아(eudaimonia)의 의미와 오늘날의 행복이라는 개념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서는 박성호,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아와 쾌락의 연관성」, 『철학논총』, 제41집 제3권(2005, 7):109-131를 보라.

2) Etienne Gils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St. Augustine*, trans. L.E.M. Lynch (London: Lowe and Brydone Ltd, 1960), 3,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서울: 서광사, 1996), 19에서 재인용.

3)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155.

불행을 말해주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을 ‘위기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혹은 ‘피로 사회’⁴⁾ 등으로 명명하는 것은 행복을 지향하고 염원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어긋난 삶의 현실이 전개됨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사실이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에서 발견된다.

이와 관련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재정정책학회에 제출한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 비교’ 논문에서 한국의 종합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위 논문에서 소개된 종합복지지수를 보면 34개 OECD 회원국 중 국민행복지수는 33위이고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다. 논문은 특히 국민행복 부문에서 한국의 순위가 낮게 나타난 이유를 높은 자살률에 반해 낮은 출산율과 저조한 주관적 행복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이루어진 분석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만5천 달러)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한국인은 “더 피곤하고 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⁵⁾ 비슷한 결과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보건건설당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개 항목(인생목표, 사회관계, 경제상황, 공동체의 안전 및 자부심, 건강 등)에 걸쳐 시행된 위의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세계 145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가까운 117위를 기록했다.⁶⁾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행복 담론에 있어 중요한 방향 전

4) 김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역(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5) “한국 국민행복지수 OECD 최하위권”, 『연합뉴스』, 2014. 2. 10. 그의 분석은 행복에 대하여 미치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제한된 영향을 시사한다.

6) “한국인 '삶의 질' 웰빙지수 세계 117위...전년보다 42단계 추락”, 『뉴스1 코리아』, 2015. 6. 24.

환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의 유발과 증진을 위해 소득수준 외에 다른 행복결정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소득의 증가로 인한 경제만족도의 상승이 삶의 총체적인 행복도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다른 측면’의 행복에 관해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입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에 편중된 행복 담론이나 해법 추구는 행복 이해와 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행복담론에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변수는 초고령사회이다.⁷⁾ ‘장수 리스크’와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로 인해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는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동체 내의 의미 있는 역할과 보람 있는 활동이 전제되지 않은 채 늘어나기만 한 ‘노년기’와 이와 연관된 관계의 감소나 단절 그리고 불충분한 노후자금 등의 문제가 100세 시대가 반드시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다.⁸⁾ 초고령화 시대가 우리 사회에 야기하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회의적인 시각은 사회 전 영역에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또는 그에 앞서 개인들에게 적절한 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와 공동체 정신의 고양 및 관계윤리 실천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이슈들, 특히 100세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행복담론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특히 사회적 행복의 필요

7)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전체의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로 분류한다.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2011; 오진호, 「기대여명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4. 2, 12.

성을 부각시키고자한다. 이유는 초고령화가 불러오는 도전들이 시사하는 것은 수입·건강 등 개인 삶의 객관적 조건에 기초한 행복 이해가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는 사실과, 공동체 참여와 관계 및 활동을 통한 삶의 사회적 측면이 초고령사회에 요구되고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조사한 ‘2014 세계 번영 지수’ 발표에서 한국이 다른 행복지수 조사들과 구별되게 비교적 살기 좋은 나라에 선정되었음에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결속인 사회적 자본이 조사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⁹⁾ 이전에 이루어진 다수의 행복지수 조사결과와의 차이로 인한 가능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레가툼 연구소의 발표 역시 우리 사회의 행복도 제고가 사회적 행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초고령화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행복 증진을 위해 왜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행복을 실천할 것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복의 사회적 측면이 수용되고 실천될 경우 초고령사회가 야기하는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해 ‘카리타스(하나님을 향한 사랑)와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을 선택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9) 본 연구소에 의해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2014 세계 번영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25위에 선정됐다.
<http://www.li.com/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14-legatum-prosperity-index.pdf>;
<http://news.donga.com/3/02/20141104/67652367/3>; 유석춘·장미혜,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2002).

II. 초고령화 시대와 행복 담론

1. 초고령화와 100세 시대의 문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압축적 고령화로 OECD 국가 중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문화적·정서적인 코드로 읽지 않고 경제적·현실적인 틀에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수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늘어난 노년기에 비례하지 않는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부재나 제한 그리고 관계의 감소나 단절 및 불충분한 노후자금 등의 이유로 밝혀졌다.¹⁰⁾ 그런데 우리는 초고령사회가 던지는 도전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은퇴자산에 따른 (높은) 장수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시각과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혹은 외적 가치에 따른 접근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을 기초하고 동반하기 때문이다. 행복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란 사실을 수용할 때 빈곤·소외·고독감·질병 등의 초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한 바른 질문은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담론의 형태이어야 한다. 더구나 초고령사회 문제에 관하여 제시되었던 해법들 중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과 상관성이 많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계되며 특히 사회적 행복이 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기에 더욱 바르고 적절한 논의는 행복담론으로 초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10) 오진호, 「기대여명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4. 2, 12.

2. 소득과 행복 그리고 초고령화시대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초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높은 ‘장수리스크’ 및 사회적 역할의 감소와 충분하지 못한 경제력 등으로 말미암는 100세 시대에 대한 우려와 회의적 시각은 행복 혹은 삶의 질 주제와 연결될 때 보다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령화사회와 장수혁명이 야기하는 불안감의 주요 원인인 수입(그리고 이것을 위한 일자리)과 건강 등은 행복에 대한 객관적 조건에 해당된다.¹¹⁾ 그런데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이슈에 대한 접근과 해법은 객관적 조건의 해결만을 위한 노력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예상과는 달리 한계를 갖는 대안을 제시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수입(그리고 이것을 위한 일자리)과 건강 등 객관적 삶의 조건 외에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 및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소가 소득이나 경제적 조건 못지않게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수준에 다다른 후에는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 유대 혹은 인간관계의 질에 의해 행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사실에 일치하여 기본적 필요가 충족된 다음에는 행복과 소득간의 상관성이 많지 않다는 ‘이스털린의 역설’¹³⁾에 이어 경제적 성공에 치우친 행복관의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11)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2013년도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건강문제(65.2%)’와 ‘경제적인 어려움(53.0%)’이 가장 크고 뒤를 이어 ‘외로움과 소외감’(14.1%), 실업이나 고용 불안정(6.5%), 무료함(13.3%) 등으로 밝혀졌다(통계청, 「2014고령자 통계」, 2014. 9. 29: 35).

12) *World Happiness Report 2012*, 9;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2014): 199-200.

13)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2010. 6.: 4-5.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1인당 소득은 급속히 증가하여 2만 달러가 넘었지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큰 변화 없이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이 유의미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제기하는 유사한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다.¹⁴⁾ 특히 데릭 보크 (Derek Bok)는 행복과 삶의 만족이 더욱 증진되기 위해서는 흔히 인식되고 추구 되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신뢰, 네트워크, 봉사 등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⁵⁾ 보크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대로 행복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조건을 소개하면서 인간관계, 일, 신앙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삶의 사회적 측면, 그래서 행복의 사회적 요소와 연관된 것들로 사회적 행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1) 인간관계

전술하였듯이 초고령사회가 초래할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00세 시대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공동체 및 인간관계와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너무 긴 노년기와 소외·고독감 그리고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을 내놓았다. 위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암시하는 것처럼 자녀의 유무가 반드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며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도 상이하게 나타

14) Derek Bok, *The Politics of Happiness*, 추홍희 역,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서울: 지안, 2011), 8.

15) Bok, 앞의 책, 9. 보크나 이스털린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지 않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주장에 관해 다음을 보라: Daniel Kahneman and Angus Deaton,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Center for Health and Well-being, August 4, 2010. Betsey Stevenson and Justin Wolfers,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Brooks Institution (April, 2013).

16) 보크는 학자들이 대다수의 행복을 결정짓는 6가지요인을 언급하였는데 바로 결혼, 인간관계, 직장, 건강, 종교, 정부의 질이다. 본 논문에서는 목적상 이 중 관계, 직장, 종교와 연관된 부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연구 결과는 부모가 되는 것과 자녀가 있다는 것이 필히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¹⁷⁾ 그러나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는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에 상관없이 혼자 있을 때보다 교제와 공동체에 참여할 때 만족을 느끼며 인간적 관계와 유대가 다른 무엇보다 행복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망은 육체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의 가능성을 낮추며 면역체계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서 각종 단체의 참여와 사회적 모임 그리고 정기적인 동호회 출석과 자원봉사는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¹⁸⁾

2) 일과 직업

일이나 직업과 행복의 상관성도 본 주제의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만큼 유의미해 보인다. 이점은 양자의 상관성에 관한 일치하지 않는 견해도 불구하고 직업에서 느끼는 만족이 행복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기초한다.¹⁹⁾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근래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갖는 “감정”이 전반적인 행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⁰⁾ 또한 일이나 직업과 행복의 상관성에 따라 직업에 대한 만족이 행복을 가져다줄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실적이 야기하는 정신적인 압박은 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이다. 직업을 잃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줄어들어 자살, 우울증, 중독의 위험에 매우 취약해진다. 흥미로운 것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보다

17) Bok, 앞의 책, 48-49.

18) Bok, 앞의 책, 49.

19) Bok, 앞의 책, 50.

20) 같은 책.

“자존심의 상실”과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충분한 실업수당의 지급도 이러한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일 혹은 직업과 관련된 인간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²¹⁾ 그것은 일 혹은 직업이 경제적 보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삶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로버트 퍼트남 등의 연구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 급여보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직업인의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²²⁾ 사실은 이러한 평가를 분명히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것이다.²³⁾

3) 신앙

보크는 신앙 혹은 종교도 학자들의 설문조사 연구에 근거해 행복을 결정짓고 지속시키는 요인에 포함시켰다. 신앙이 건강하고 장수할 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개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영위하도록 돕는 등 삶의 만족을 계속해서 느끼도록 작용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²⁴⁾ 이 같은 사실은 신앙 혹은 종교 활동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중요도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행복의 “또 다른 기원”이 신앙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개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삶이나 하는 일에 자신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수용과 관련된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생의 목적이나 삶

21) Bok, 앞의 책, 51.

22) John F. Helliwell, Haifang Huang, and Robert Putnam, “Are Trust and Social Capital Neglected Workplace Investment?”(unpublished paper, 2008); Bok, 앞의 책 50에서 재인용.

23) Bok, 앞의 책, 50.

24) Bok, 앞의 책, 52.

의 태도를 바꾼 개인들의 행복지수가 크게 상승했다는 조사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²⁵⁾ 또 종교적 교리가 가르치는 생활 원칙에 따른 자원봉사나 이웃사랑이 행복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다. 자신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돕거나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시간적이고 물질적 기여를 하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²⁶⁾

3.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 라슬렛의 '제3기 인생'과 새들러의 '서드 에이지'

그런데 데릭 보크가 위에서 말한 행복의 유발과 지속 요소들은 사회적 측면과 공동체적 특징을 모두 본질로 내포하고 있고 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본질은 초고령화 시대의 행복 담론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고령화시대 행복의 기준이 자발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에 놓이게 됨으로써 적절한 활동과 일거리가 만족스러운 삶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일과 관련된 중요한 전개로 장수혁명이 불러온 노동수명의 연장이 현실화 되고 직업과 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또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노동으로 생계를 위한 경제적 목적에 제한되었던 일/직업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일/직업에서 목적의식을 찾고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삶의 단계에 대한 이해 즉 생애주기에 관한 새로운 정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생애주기 이해는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출생 후 양육과 진학의 기간인 성장기, 취업과 결혼 및 자녀 양육의 성숙기, 은퇴와 노화 및 자녀 독립의 노쇠기, 사망에 이르고 생애주기가 종료되는 체계

25) 같은 책.

26) 같은 책.

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²⁷⁾ 그러나 초고령화시대는 전통적인 생애주기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100세 시대에 맞추어 경제활동의 기간을 연장하고 정년 이후에도 ‘일과 ‘사회공헌’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점진적 은퇴가 바람직할 것이다. 생애주기 패러다임도 “궁정적”이고 “창의적” 노화의 실현을 추구하여 교육, 일, 은퇴의 세 단계로 단순·확일화시킨 이전의 “직선형”에서 전생애적으로 학습, 유/무급 활동, 여가가 다중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순환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초고령화시대에 적절한 여가의 의미는 “은퇴 후 유희시간”이 아니라 학습과 활동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창조적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²⁸⁾ 그러므로 새로운 생애주기이해는 중년이후의 발달단계에 대한 재해석과 세분화 혹은 새로운 발달단계의 형성, 그리고 이와 더불어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을 수반한다. 그 결과 “제2인생”을 추구하여 중년 이후에도 개인의 삶에 “변화와 발전”이 계속해서 가능하며 초고령화시대에 요구되는 행복한 삶 즉 사회적 행복의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된다.²⁹⁾

이러한 이해가 사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제2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의 시도에서 행복의 근거를 발견하고 그 구조는 철저히 삶의 사회적 측면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인생주기론에 따르면 중년기는 인간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70세 또는 75세까지로 적절한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중년기 ‘인생의 과제’는 “세계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에릭슨은 “생산성”(generativity)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중년기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바른 자녀 양육, 사회에 유익이 되

27)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변화 및 특성 분석」, 보도자료, 2013. 11. 18.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도자료, 2011. 5. 26: 23-24.

29) 배영순 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희망리포트』, 희망제작소 2015. 2: 30.

는 “직업 활동이나 사회봉사”, 여러 분야에서의 창조적인 활동과 업적 이루기, 다음 세대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³⁰⁾ 이처럼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자신이나 가족 중심의 삶과 시각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 시기에는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실현하며 따라서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이 건강한 삶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³¹⁾ 이와 같이 중년기(경우에 따라서는 노년기)는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하는 성숙한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³²⁾ 사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에 갇혀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할 때 “침체감”(stagnation)에 빠지게 된다.³³⁾ 그러므로 에릭슨이 말하는 ‘생산성’이 실천되지 않는 중(노)년기는 이웃과의 관계나 공동체의 참여 등 삶의 사회적 측면이 부재함에 따라 개인 행복의 신장이나 사회적으로 확대된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든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인구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피터 라슬렛(Peter Laslett)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지도(A Fresh Map of Life)』에서 인생주기 중 퇴직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인 ‘제3기 인생’(개인에 따라서는 80대뿐 아니라 90대 까지도 해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⁴⁾ 제3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연령’과 ‘퇴직’보다 더욱 “개인적 선택”에 따르며 발달과업인 “자기성취”(personal achievement)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³⁵⁾ 이 시기는 개인이 이전의

30) 최성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446.

31) William Sadler,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서울: 사이, 2006), 149-150.

32) 최성재, 앞의 책, 446.

33) 같은 책.

34) Peter Laslett,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1)를 보라.

‘구속’이나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운 때로 자신의 목표, 꿈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다 넓은 세계와 네트워크(공동체와 이웃)를 향한 새로운 ‘구속’과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시기이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는 그의 저서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에서 40대에서 70대 중후반의 ‘제3연령기’에 주목하여 40대 이후에 인생의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2차 성장(second growth)의 시기로 이해한다. 40에서 70대 중후반의 ‘서드 에이지’라고 해도 개인적 성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여러 가능성을 찾아 개발함으로써 “창조적 변화”를 도모하여 2차 성장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³⁵⁾ 이에 따라 일의 개념은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이나 보수를 받는 직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³⁷⁾ 어떤 분야에서든지 흥미와 “재능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된다.³⁸⁾ 생계를 목적으로 한 유급의 직업에 한정되는 일의 범위를 넘어 자아와 의미를 구현하는 모든 시도까지 포함할 때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지며 지역 공동체의 니즈(needs)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자원(自願)에로 이어지게 된다.³⁹⁾ 포괄적인 일에 대한 이해는 개인 행복의 기초인 자신을 탐구하고 확대하는 계기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길을 열어준다.⁴⁰⁾ 이처럼 일을 “개인적으로 의미 갖는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재능기부와 같은 봉사에 대한 동기가 발생하게 돼 “사회적인 부분”에 냉담하지 않으며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주저하지

35) 최성재, 앞의 책, 449.

36) Sadler, 앞의 책, 24.

37) Sadler, 앞의 책, 113.

38) Sadler, 앞의 책, 118-119.

39) 같은 책.

40) 같은 책; Sadler, 앞의 책, 151-163.

않기에 자신(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사회적 행복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⁴¹⁾ 그런데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로 예증되는 사회적 유대의 심화를 위한 서드 에이지의 “새로운 성장” 노력은 외려 “무엇을 할” 그리고 “함께하는” 자유를 신장시킨다.⁴²⁾ 이 시기는 여러 의무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스스로를 속박하는 요소들”에서 벗어나 “보다 풍요로운 관계”를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⁴³⁾ 자신의 성장과 함께 보다 책임 있는 사회적 활동과 더 넓은 네트워크의 ‘나눔’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때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기중심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같이하는 자유”를 의미한다.⁴⁴⁾

III.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행복을 위한 ‘사회적 질’ 모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행복담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회적 행복 논의는 초고령사회가 낳을 새로운 생애주기에 따른 ‘제3기 인생’ 혹은 ‘서드 에이지’의 틀과 인식 안에서 진행될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은 이웃이나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통해 실현되고 증진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과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면서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행복을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시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여기서 필자는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내용과 특징이 사회적 행복의 구체화에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적절한 예로 사회적 질 개념의 발전과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온 사회적 질을 위한 유럽제

41) Sadler, 앞의 책, 145.

42) Sadler, 앞의 책, 260.

43) 같은 책.

44) Sadler, 앞의 책, 268-269.

단(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사회적 질’ 모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적 질 모델⁴⁵⁾

| 사회경제적 보장 (socio-economic security) | 사회응집력 (social cohesion)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보장 • 물질보장 • 고용보장 • 주거보장 • 건강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응집력 • 사회상대 응집력 • 정치적 응집력 • 가치와 규범 • 공적 안정성 • 사회자본 네트워크 • 신뢰 • 연대성 |
| 사회포용 (social inclusion) | 사회역량강화 (social empowermen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와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 • 사회보장, 교육과 건강서비스 제공에의 포용 • 커뮤니티와의 동일성 • 정치적 포용 • 시민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문화적 역량강화 • 정치적 역량강화 • 경제적 역량강화 • 사회 심리적 역량강화 • 정보역량강화 • 사회적 유동성 |

우선 EFSQ가 정의하는 사회적 질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개인적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⁴⁶⁾ ‘사회적 질’은 사회 경제적 보장, 사회응집력, 사회포용, 사회역량강화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상호 작용하는 ‘사회 공간’ 안에서 기능하며 인간 행복의 내용을 확보하고 실천을 안내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개인은 “궁극적 실체”로서 “초점”이 되지만 “사회 상황의 발전 속에서 생활하는 활동적인 주체”로 이해된다.⁴⁷⁾ 구조적 요소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보면 우선 개인들에게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45) 김승권 외, 앞의 책, 42.

46) 김승권 외,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2: 40.

47) 김승권 외, 앞의 책, 40.

능력을 갖도록 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사회역량강화). 이러한 역량강화 시도에 의해 개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참여와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사회포용), 참여와 접근에 요구되는 의료, 고용, 주거 등에서 일정한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사회경제적 보장). 그 결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사회응집력). 따라서 “사회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안정된 삶이 실현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되며, 이러한 지원은 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접근성을 부여할 것이다.⁴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질 모델은 “인간 주체를 (개인적 주체가 아닌)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며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질’ 모델이 갖는 장점과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가 신학윤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의 여부와 내용에 관해 본 연구는 신학윤리적 개념인 ‘카리타스’(하나님을 향한 사랑)와 ‘언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규명할 것이며 이러한 규명으로 ‘사회적 행복’의 체계화를 위한 두 개념들의 기여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 질 것이다.

IV. 초고령화 시대의 기독교 윤리적 행복의 방향: 카리타스와 언약

철학자 탁석산은 그의 『행복 스트레스』에서 대개의 경우 행복론이 “모

48) 김승권 외, 앞의 책, 40-42.

든 것을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하고 사적인 관계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신의 행복이 우선 성취된 후에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편견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⁴⁹⁾ 이어서 그는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좋은 삶”이어야 한다고 보고 행복한 삶에서 좋은 삶으로의 전환을 추천한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자신의 행복을 먼저 확보하려는 행복추구 시도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려 행복은 좋은 삶을 통해 오며 좋은 삶을 위한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보고 관계를 맺는 대상인 개인(자신), 이웃, 사회 모두에게 좋은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행복에 터 한 행복 추구는 충분하지 않고 이웃과 사회의 행복까지를 생각하는 삶이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고 신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⁵⁰⁾ 그렇다면 사회적 행복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원칙은 무엇일까? 기독교 신학이 사회적 행복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가?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행복을 위한 교회와 신학의 기능

“다원적인” 21세기 상황은 종교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희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타인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⁵¹⁾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집중하려는 경향과 유혹에서 벗어나 행복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공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해야한다.⁵²⁾ 또한 기독교 신학

49) 탁석산, 『행복 스트레스』(경기 파주: 창비, 2013), 237-241.

50) 탁석산, 앞의 책, 237-241.

51)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선 기독교』(서울: IVP, 2014), 147.

52)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제25집

은 의미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지향함으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된 ‘사회적 질’ 모델은 상기의 교회와 신학의 의무와 같은 지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신학적 이해에 있어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광장에선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상승하여 예언적 메시지를 받는 것”과 “세상으로 회귀”하여 받은 메시지에 따라 인간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⁵³⁾ 볼프는 신앙이 여러 형태의 개인적 목적 실현에 기여해도 “이웃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때 기독교는 “회귀의 기능장애”를 겪게 된다고 지적한다.⁵⁴⁾

볼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신앙의 기능장애”를 방지하고, 모두의 “번성”과 하나님의 본질적 관련성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 삶의 현실과 기독교 덕목 간의 상관성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실질적 소홀이 근거가 약함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과 사회적 행복의 기초인 “번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⁵⁵⁾ 그는 교회의 사명은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의 번성을 일구며 공공선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참여”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속으로 투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⁵⁶⁾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전 존재를 통해 세상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우리 각자의 “삶 전체”가 “인간의 번성”에 복무하고 “공익”에 기여해야 하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사이에 구분이 있지만

(2013): 35.

53) Volf, 앞의 책, 111.

54) 같은 책.

55) Volf, 앞의 책, 111-112.

56) Volf, 앞의 책, 142.

양자 간에는 철저한 상호 의존과 “분리할 수 없는 통합”이 이루어진다.⁵⁷⁾ 이 점은 기독교가 사람들의 “번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 그리고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의 중요성과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복음 전파도 타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에 기인해야하며 이웃이 직면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부여하신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각 개인이 지음 받은 목적(소명)대로 살지 못함으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⁵⁸⁾ 이처럼 본 연구의 주제가 말하는 사회적 행복의 기독교적 측면은 기독교의 덕목인 ‘사랑의 실천’에서 발견되고 실천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행복의 내용을 구성하고 드러내는 기독교의 사랑이 잘 표현된 기독교적 관계 윤리는 ‘언약’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행복의 기독교적 측면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두 요소인 ‘사랑’(행복의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의 ‘카리타스’)과 ‘언약’에 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2. 어거스틴의 카리타스

기독교신학은 보편성뿐만 아니라 신앙과 실천의 일치를 추구하기에 사회적 측면과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며 따라서 사회적 행복을 지원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행복과 사랑을 잘 접목시킨 어거스틴(Augustine)의 사상은 우리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을 규명해준다.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행복은 욕구하는 것을 얻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행복의 조건으로 원하는 것의 획득이라고

57) 같은 책.

58) Volf, 앞의 책, 151.

말한다(*De beata vita*(On the Happy Life) 2.10;2.11). 그러나 원하는 것을 소유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을 소유한 경우라고 어거스틴은 설명한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참된 행복의 조건에 관해 어거스틴은 우선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사랑의 대상이 “가멸적이고 가변적인 것들”로서 “불완전한 영역”인 쿠피디타스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영구하며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다.⁵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카리타스는 사람들을 반목하게 하는 대신 “연계”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게 한다.⁶⁰⁾ 어거스틴에 따르면 쿠피디타스는 “보다 더 열등한 것”을 지향하게 해 자아를 “강등”시키고 “진리”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리타스는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서 자아와 이성의 (완전한) “가치를 실현”하게하여⁶¹⁾ “보다 더 저급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⁶²⁾ 교회는 카리타스를 “구현”하고 “소유”하므로 참된 행복을 지향하고 또한 참된 행복을 낳는 카리타스의 실천을 삶의 과제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⁶³⁾ 이는 그들이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 계명의 추구를 통해 교회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카리타스의 실천을 자신의 사명으로 수행하게 된다.⁶⁴⁾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카리타스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행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59) William S. Babcock, *The Ethics of St. Augustine*, 문시영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서울: 서광사, 1998), 110.

60) William S. Babcock, 위의 책, 111.

61) Babcock, 위의 책, 105.

62) Babcock, 위의 책, 110-111.

63)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의 덕 윤리』(서울: 북코리아, 2014), 312.

64) 문시영, 위의 책, 312.

은 행복의 사회적 측면 즉 사회적 행복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지향하는 행복은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이며 따라서 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행복에 관해 말하고자 하였다.⁶⁵⁾ 교회가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사회적 행복을 가져오는 카리타스 공동체로 이해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따르는 진정한 행복은 타자에 대한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이다.

사회적 행복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가 각각 영향을 미쳐 형성되는 특징적인 문화와 공동체의 뚜렷한 차이에서 실례를 볼 수 있다.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의 반복되는 실천은 매우 대비되는 사회를 형성하여 각각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문화가 지배적이거나 반대로 “시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쿠피디타스는 개인들 간에 단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기초한 공동체와 관계문화를 만들며 “법률의 규정과 처벌”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그 이유는 쿠피디타스가 추구하는 “불완전한 영역”은 “가멸적”이고 “가변적”이어서 필연적인 이것들의 “상실에 대한 염려”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피디타스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규제”와 “위협”과 “제한”이 문화적 코드가 되며 “평화와 사회의 질서” 역시 이러한 원칙에 준해서 형성된다.⁶⁶⁾ 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카리타스는 “상실의 염려”가 지배하지 않기에 “규제”와 “위협”과 “제한”을 야기하는 “염려”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카리타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공동의 사랑”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실천에 따른 가치

65) 문시영, 위의 책, 307.

66) Babcock, 위의 책, 108; Augustine, *De libero arbitrio* [On Free Will], trans. J. H. S. Burleigh, in J. H. S. Burleigh(ed.), *Augustine: Earlier Writing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6권(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1. 15. 32.

관이 형성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질서가 세워진다.⁶⁷⁾ 이처럼 카리타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측면이 나타나는 관계윤리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윤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약(contract)에 대비되는 언약(covenant)의 내용과 특징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3. 관계윤리로서의 언약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 행복은 계약이 아닌 언약관계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은 개인적 행복의 틀을 벗어나 행복의 사회적 측면을 지향하고 실천하도록 이끌 수 있다. 반면 계약관계를 실천하는 개인과 사회는 행복의 확장 노력에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적 삶은 행복의 신장에 요구되는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지 않거나 지향하지 않는 행복추구에 머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과 행복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언약 관계에 중심한 행복담론을 통해 행복의 사회적 측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과 언약의 관계 윤리의 어떤 내용들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인간이 맺는 관계 유형의 하나인 계약은 이해(利害)에 의해 맺어지고 “효과”와 “편리”를 좇아 “상호동의”와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⁶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관계로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는 명시적으로 동의된 조건에 제한된다. 이와 다른 관계유형인 언약은 요구보다 기여를 우선하고 권리보다 책임을 앞세우며 명시된 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도덕률과 사랑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한다. 언약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를 말하는 계약과 달리 “해야만 하는 것(ought)”을 할 수 있는

67) Babcock, 위의 책, 108-109.

68)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서울: 서울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70.

“책임적 자유”를 말한다. 언약에서 자유는 “다른 가치”에 의해 질서 지워지고 제한되는 자유(“ordered and bounded freedom”)이다.⁶⁹⁾ 반면 계약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된 개체라는 인간관에 따라 철저하게 개인적일수록, 자기의 이익에 충실할 수가 있고, 더욱 분명히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밝힐수록 계약이 세분화될 수 있기에.... 보다 개인적인, 보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고립된 인간에 의해 형성, 유지, 발전”되는 관계 형성의 원칙이다.⁷⁰⁾ 따라서 만약 계약에 따른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경우 “고립”과 “형식적인 관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⁷¹⁾ 반면 언약은 항상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관계가 맺어진다.⁷²⁾ 그러므로 계약이 언약으로 “승화”될 때⁷³⁾ 사회적 행복의 실현성이 높아지고 또한 카리타스의 실천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참된 행복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언약은 차별이나 갈등 혹은 무관심으로 향하는 인간의 성향을 사랑과 포용과 가능성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안내하려는 시도이다. 언약은 따라서 “공동의 선에 기여하는 종류의 목적”에 복무하도록 의도된 관계윤리의 원칙으로 적절하게 풀이될 수 있다.⁷⁴⁾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

69) 신기형, 위의 책, 156; 신기형, 『기업윤리: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서울: 한들, 1998), 19-21.

70) 신기형, 『기업윤리』, 20. 본 논문에서 다루는 ‘언약과 계약’은 각각 “구약성서의 언약 신학적 개념”과 “법적인 혹은 정치 사상사적인” 계약을 가리키지 않는다. 여기서는 각각의 본래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보다 사회학적 개념”과 “윤리적으로 발전된 개념”을 사용한다(신기형, 『기업윤리』, 19).

71)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170.

72) 신기형, 『기업윤리』, 20.

73)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170.

74) Max L. Stackhouse, “Introduction: Foundations and Purpose,” in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ed. Max L. Stackhouse et al. (Grand Rapids: Eerdmans, 1995), 31.

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계약의 틀을 넘어 ‘관계’의 시각에서 인간과 삶을 인식하고 형성하려는 언약은 “서로에게 우리 자신들을 상호 위탁하는 관계 맺음”을 요구하고 지향한다.⁷⁵⁾

내용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언약은 폴 레만(Paul L. Lehmann)이 제시하는 관계 원칙인 “책임적인 상호성”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책임적인 상호성”은 서로 간에 이타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상대에 대하여 “취약해지기”를 의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관계윤리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윤리의 실천은 자신의 권리보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도록 한다.⁷⁶⁾ 또한 “자기 충족”이나 “자아중심”을 지향하는 대신 전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촉진하고 그 중요성을 상기시킨다.⁷⁷⁾ 이러한 윤리적 실천은 타자에게 계약대로 “등가물”을 요구하는 교환관계 대신 언약적 상호 배려와 책임과 수용을 근거로 한다.⁷⁸⁾

그런데 위에서 설명된 언약적 관계윤리가 적절하게 실천되고 사회적 행복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관계윤리의 실천이 사랑의 하나님에 일치하여 그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이다.⁷⁹⁾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실천을 향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람직한 삶”의 목표로 종종 제시되는 “평온”과 “자족”이 행복한 삶을

75)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鄉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제18집(2009): 295; Joseph L. Allen, *Love and Conflict: A Covenantal Model of Christian Ethics*(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5), 32-39.

76) Pau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77)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체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221-222.

78) 이상훈, 위의 글, 222;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鄉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제18집(2009): 289-316.

79) Volf, 위의 책, 108-109.

살기 위한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웃의 행복이 무엇이고 어떠한지 결정하는 것은 행복과 “바람직한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이해가 아니라 타자의 입장과 그들의 유익 여부가어야 한다. 볼프는 타자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타자의 행복에 주목하고 매진해야 한다고 말한다.⁸⁰⁾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행복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그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형태로 실천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⁸¹⁾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언약적 측면으로 “책임적인 상호성” 아래 서로에 대한 이타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상대에 대하여 “취약해지기”를 의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관계윤리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사회적 측면을 갖추도록 하는 언약적 관계윤리와 사회적 행복의 증진을 위한 대상은 누구를 포함하는가? 이와 관련해 기독교 교육학자 리처드 아스머(Richard Osmer)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 “보편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언약적 사랑을 인식하고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창조된 ‘타자’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겠다는 “포괄적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다.⁸²⁾ 이러한 포괄적인 언약적 사랑에 주목하여 아스머는 “동등한 배려의 윤리”를 설득력 있는 기독교 윤리적 틀로 이해한다. 이 윤리적 틀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의 언약”은 모든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만든다.⁸³⁾ 그리고 배려의 윤리 속에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언약적 사랑에

80) Volf, 위의 책, 109.

81) 같은 책.

82) Richard Osmer,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s*, 장신근 역,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18.

응답하는 기독교적 삶의 능력인 “공홀”이 포함된다. “공감하는 도덕능력”을 담고 있는 “공홀”은 약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게 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이를 통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공감을 일으키고 표현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 속의 공홀은 언약적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그 너머로 봉사를 실천하도록 이끈다.⁸⁴⁾

언약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살아가야 하는 사실에도 드러난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된 개체로 이해하는 계약적 인간관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과 타자와의 인격적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자기 초월적 삶”을 추구한다.⁸⁵⁾ 다니엘 밀리오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삶의 “자유”와 “기쁨”의 근거와 동기가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의 실천에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⁸⁶⁾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모두의 “공존성(coexistence)과 상호 의존성”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야기의 중심 주제이다.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정확하고 참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독한 존재자들의 집합체”로 머물기보다 이웃과 삶을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에⁸⁷⁾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타자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이웃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⁸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를 정확히 나타낸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83) Osmer, 위의 책, 519.

84) Osmer, 위의 책, 521.

85)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백충현 역『기독교조직신학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245.

86) Migliore, 위의 책, 245.

87) Migliore, 위의 책, 186-7.

88) Migliore, 위의 책, 250.

적[이면서], 사회적 존재”이다.⁸⁹⁾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행복을 포함한 인간 삶의 사회적 측면이 중요하고 갖추어져야 함을 뜻한다. 행복의 사회적 측면의 확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카리타스의 실천을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의 형태를 취하며 카리타스의 실천이 전개되는 방향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약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윤리의 적용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인간의 삶 속에서 “공동의 사랑”과 사회적 “유대”를 위한 카리타스의 실천을 안내하는 언약적 관계 윤리의 적용을 통해 행복의 사회적 측면이 우리에게 부여되며 사회적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의 가장 적절한 양태이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100세 시대의 조건을 위해 초고령사회가 일으키는 도전들에 행복담론, 특히 사회적 행복을 통한 행복의 증진으로 문제극복의 실마리를 찾고자 행복의 사회적 측면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초고령사회가 야기하는 역할과 활동의 제한 그리고 관계의 감소나 단절 등 사회적 요소의 필요와 부각이 시사하는 것은 수입·건강 등 삶의 객관적 조건에만 기초한 초고령화의 문제인식과 해결 노력과 그에 따른 행복 이해가 한계를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반면 공동체의 참여와 관계 및 활동 등 삶의 사회적 측면이 초고령사회에 중요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장되었다. 따라서 행복의 사회적 측면이 수용되고 실천될 경우 초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위기의 극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필자는

89) 밀리오리 『기독교조직신학개론』, 251.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카리타스’와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을 선택적으로 전개하였다. 카리타스와 언약에 관한 논의는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행복의 추구를 위한 환경과 조건인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행복의 사회적 측면의 확보에 집중할 ‘제3기 인생’과 ‘서드 에이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원칙과 내용을 제공하였다. 교회와 신학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모두의 “번성”과 하나님의 본질적 관련성을 증명하기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는 인간 삶의 현실과 기독교 교리 및 덕목 간의 상관성에 관해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행복에 대한 본 연구 역시 오늘날 가장 주목 받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이러한 방법론과 관점을 적용하려고 시도한 신학 윤리적 논의이다.

참고문헌

- 김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 김승권 외.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2.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의 덕 윤리』. 서울: 북코리아, 2014.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6.
- 신기형. 『기업윤리: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들, 1998.
- _____. 『기독교윤리개론』. 서울: 서울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오진호. 『기대여명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4. 2, 12.
- 유석춘·장미혜.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2002).
-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2014): 193-230.
- _____.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鄉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2009): 289-316.
- 최성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서울: 서울대학학교 출판문화원, 2012
- 탁석산. 『행복 스트레스』. 경기 파주: 창비, 2013.
-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2010. 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2011.
- Allen, Joseph L. *Love and Conflict: A Covenantal Model of Christian Ethics*.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5.
- Augustine, *De libero arbitrio [On Free Will]*. Trans. J. H. S. Burleigh. In J. H. S. Babcock, William S., 문시영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8.
- Bok, Derek, 추홍희 역.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 서울: 지안, 2011.
- Burleigh(ed.), *Augustine: Earlier Writing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6권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3).

- Gilson, Etienne. *The Christian Philosophy of St. Augustine*. Trans. L.E.M. Lynch. London: Lowe and Brydone Ltd, 1960.
- Laslett, Peter.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1.
- Lehmann, Paul,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Migliore, Daniel L., 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Osmer, Richard., 장신근 역,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Sadler, Willam,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6.
- Stackhouse, Max L. "Introduction: Foundations and Purpose." In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ed. Max L. Stackhouse et al, Grand Rapids: Eerdmans, 1995.
- Volf, Miroslav, 김명윤 역. 『광장에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논문투고일: 2015. 06. 29.

심사개시일: 2015. 07. 13.

게재확정일: 2015. 08. 07.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초고령사회의 도전에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복담론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특히 사회적 행복을 통한 행복의 증진으로 문제 극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리 삶과 행복의 사회적 측면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초고령사회는 무엇보다도 역할과 활동의 제한 그리고 관계의 감소나 단절 등 사회적 요소의 필요와 부각을 야기한다. 이러한 사실은 수입·건강 등 삶의 객관적 조건에만 기초한 초고령화의 문제인식과 해결 노력과 그에 따른 행복 이해가 갖는 한계를 말해준다. 반면 공동체의 참여와 관계 및 활동 등 삶의 사회적 측면이 초고령사회에 중요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의 사회적 측면이 수용되고 실천될 경우 초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위기의 극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카리타스’(하나님을 향한 사랑)와 ‘언약’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을 선택적으로 전개하였다. 카리타스와 언약에 관한 논의는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행복의 추구를 위한 환경과 조건인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행복의 사회적 측면의 확보에 집중할 ‘제3기 인생’과/혹은 ‘서드 에이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원칙과 내용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초고령화 사회, 사회적 행복, 생애주기, 사회자본, 카리타스, 언약
